

도시의 문화적 재발견

Cultural Impact

파리에서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벤트가 펼쳐진다.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2월의 이슈들을 소개한다.



새로운 빛을 창조하는 디자이너 Chantal Perrin

샹탈 페랭(Chantal Perrin)은 디자인을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신인 디자이너이다. 그녀의 집에 꾸며진 작은 쇼룸은 램프의 부드러운 빛들로 환하게 빛난다. 디자이너 이전의 직업은 영화 프로덕션 제작자. 램프의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좋아해서 책을 가지고 책장을 접어 램프를 만들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그 램프를 구입해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 악보나 소설책, 만화책 까지도 그녀의 작품 소재가 된다. 풀을 전혀 쓰지 않고 책장을 접어 여러 개의 주름을 형성하여 램프를 만들어내는 그녀. 책장의 주름 하나하나와 책에 쓰인 다양한 글과 그림들에 의해 매번 색다른 빛이 투사되는 것이 그녀 작품의 매력이다.

Address 1, rue des Iris 75013 Paris Tel 01-45-88-53-38

역사적인 장소의 현대 건축 Boutique Chaumet

프랑스의 고품격 주얼리 브랜드 쇼메가 방돔 광장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건물 외관에서 역사가 느껴지는 방돔 광장에 모던함을 가미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내부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 하나의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내부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아름다운 조명들이 쇼메의 보석들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쇼메의 이번 공사를 책임졌던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는 영종도 국제공항 프로젝트에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했던 인물. 1년 넘게 진행되었던 이번 공사는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쇼메 부티크를 수직으로 확장하고, 2층은 두 개의 부티크가 서로 연결되어 오갈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장식과 일관성 있는 이미지로 연출하여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분위기로 쇼메만의 새로운 볼륨을 만들어냈다.

Address 12, Vendom 75001 Paris
Tel 01-44-77-26-26



마이올 미술관을 장식한 금속 조각의 대가 Julio Gonzalez

파리의 마이올 미술관에서는 스페인 출신의 금속 조각가 훌리오 곤잘레스(Julio Gonzalez)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는 1876년 스페인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1900년 가족과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 작가.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사권 오랜 친구 파블로 피카소를 통해 파리의 아방가르드 예술가



들을 만난 그는, 친형 장(Jean)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화가의 길을 버리고 15년 동안 고독과 가난 속에서 금속 조각술을 공부했다. 예술적 혁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초,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기 시작한 철을 현대 조각 재료로 이용하여 풍부한 표현 기법을 개발해냈고, 1927년 철을 용접하여 만든 첫 작품을 발표한 후 이 소재는 그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단순히 보이지만 그 안에 풍부한 의미가 담긴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다. 각각의 작품에 얽힌 그의 인생 이야기를 새록새록 새기면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이 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다.

전시 기간은 2월 21일까지.
Address 61, rue de Grenelle 75007 Paris
Tel 01-42-22-59-58
Website
www.museemailol.com



글·사진 정창영(파리통신원) 에디터 조유리